

日 수산물 제주 반입 실태 파악 '깜깜'

지난해 9008kg·4만2000달러 규모 도내 들어와도, 무역협회 의존... 유통 어류종도 확인 안돼 국내·일본산 혼합 판매 시 육안 식별도 어려워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오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 유통중인 일본산 수산물은 방어·농어·황돔·벵에돔·벤자리 등 도미류와 조개 등 가리비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9008kg·4만2000달러(4600만원) 규모이다. 도미류가 1만4000달러(1560만원), 가리비과 2만8000달러(3120만원)이다.

이 일본산 수산물은 부산항을 거쳐 제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한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후 부산 지역 가두리에 잠시 보관을 하다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부산에서 제주로 간 일본산 수산물은 제주에 있는 대형 수산물업체에서 보관을 하다가 횡집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과 혼합해 판매할 경우 일반인들이 이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반입실태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내 한 횡집대표는 "국내산과 일본산 벵에돔 매입 가격은 kg당 약 2만7000~2만8000원으로 손님은 kg당 1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일본산 벤자리는 kg에 3만1000~3만2000원인데 횡집에서는 9만~12만원에 판매한다. 일본산 벤자

리와 국내산 벵에돔을 잡아서 혼합해 버리면 색깔이 같아서 일반인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자연산 벵에돔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내 횡집에서 여러 마리를 구경하기가 힘들다"며 "횡집 수족관에 사이즈가 비슷한 400~500g짜리 벵에

돔이 대량으로 있으면 일본산으로 보면 된다. 또 국산 황돔은 거무튀튀한 반면 일본산은 옥돔처럼 빨갛게 빛깔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어를 제외한 제주산 중·대방어는 기름기가 거의 없지만 일본산 방어는 기름기가 많아 '배지근'하다"면서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국산이 아닌 수입산을 잡아 팔아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체 도내 일본산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수입량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와 업주들의 양심 영업도 필요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호기자 bigroad@ihalla.com



한라산 초원 배경 '고수목마' 풍경 15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에 방목된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질 이상국기자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긴급 업무보고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오는 19일 회의·대응 점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오는 19일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도

정의 대응 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원전 오염수에 대응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제주도의 일본 수출입 품목, 수산물안전성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규탄 결의안도 채택한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국제협력 강화 ▷지자체간 상호협력 강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 수립 등에 관련한 것으로, 정부 관련부처 및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전성을 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제주환경 보전 헌신한 주인공 찾아요" '제28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4개 분야·11개 부문

1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접수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한라일보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제28회 한라환경대상' 주인공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 UCC 공모전 등 총 4개 분야·11개 부문이다.

공모 대상은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도민, 단체 등으로 한라환경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 및 2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부문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다만 공적선거법에 따라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에는 상장만 수여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1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 세부공적개요 등 증빙자료를 한라일보사 경영기획실(750-2540)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hkim@hallailbo.c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후 선발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6월 10일 한라일보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제주 출산율 '1명대' 붕괴 위기

지난해 1.02명... 도, 출산장려대책 등 대응 모색

5년 새 제주도 인구 수는 3만 명이 상 늘었지만 출생아 수는 1500명 이상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 1명대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말 제주 인구 수는 69만 7578명으로, 2016년 66만 1190명에 비해 3만6388명 증가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7년 5494명,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 2020년 398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후 지난해 1.02명까지 감소해 1명대 붕괴를 앞두고 있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7년 1.31명, 2018년 1.22명, 2019년 1.15명, 2020년 1.02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1.05명, 0.98명, 0.92명, 0.84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 신생아 수는 3987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제주도는 현재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위주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

가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는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매해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위주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민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산장려 사업 발굴, 저출산 극복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농업인회관에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4월 말~5월 초 중 '사회연대회의 대표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제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해기자

제주 코로나19 15일 17시 기준 확진 671(4)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대를 이어 풀이는 53년 정성

제주도의 아픔을 깨우는 **진한 한 그릇!**

소고기 선지해장국 전문 **미풍해장국** 신제주본점 이전개업

4월 16일 (금요일)

앞당감싸 대표 김재형 배상

미풍해장국 신제주본점

제주시 선덕로 2 064)749-6776, 010-8007-7522

도청방향 ↑	신제주우체국
북지피부과	
→매중글래드호텔	코스모스 시거리
KCTV 방향 ↓	중앙중 방향 →